3월 29일 수요일 음 2월 8일(조금)

구름 많음

건강&생활

기상정보



	제우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
型 0.5≈1.0m	온은 8~10℃, 낮 최고기온은 16~18℃
	로 예상된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8~18°C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000	

	1,	0 10 0				
전		확률	오후		해뜸 06:26 해짐 18:52	
20%	제	주	10%	- m	만조 05:02	간조 11:
20%	성	산	10%	물때	14:24	22:
20%	고	산	20%		네기나키스	- NACT
20%	서	귀포 ■	10%		남기가능지수 	◆ 식중독지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림	10/18℃
모레	흐림	11/19℃

	해뜸 06:26 해짐 18:52	달뜸 11:24 달짐 01:46		
물때	만조 05:02 14:24	간조 11:58 22:27		
7				

급	관심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쁜
초미세먼지 (PM2.5)			

│ 좋음 │ 보통 │ 나쁨 │매우 나쁨



오전

월드뉴스

바이든 "의회는 총기규제법안 처리해야"

초등학교 총기난사 6명 사망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7일(현 지시간) 테네시주 내슈빌 사립초등 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와 관 련, 의회의 총기규제법 처리를 거 듭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 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고, 왜 이 런 일이 발생했는지 사실을 확인하 고 있다"며 "이는 병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총기 폭력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면서 "총기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 고, 이 나라의 영혼을 찢어 놓는다" 고 규탄했다.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 교사 3명이 희생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우리가 진전을 이뤄야 하는 때"라 며 "내슈빌의 많은 학부모에게 우 려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군대와 마찬가지로 이 번 사태와 연루된 아이들과 교사들 모두 외상 후 심리 장애를 앓을 수 있다"며 "이들의 정신 건강에도 집 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내슈빌의 기독교계 사립학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내가 교인 커버넌트스쿨에서는 이날 오 제출한 총기 규제법을 처리하기를 전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 학생 3명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한 리 일 보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건 일 편집국장 이 윤 형
제 주 의 대 표 신 문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hl@ihalla.com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 독 료 월정 10 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디



김 연 덕 제주성모안과

이른바 '집사'들에게 고양이의 안 녕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그래서 꽤 많은 이들이 알레르기 약을 먹 어가면서까지 '주인님'을 모신다. 필자 역시 다수의 주인님을 섬기는 처지라, 집사됨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꽤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자 식이나 다름없이 소중한 내 고양이 가 도리어 나를 아프게 할 수 있다 는 사실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크게 다르지 않 다. 가장 큰 애착을 가진 대상일수 록 더 자주 더 깊이 접촉하게 되고 서로 많은 것들을 나누는 사이가 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고양이 기생충이 내 눈에

된다. 따라서 심리적, 육체적 질병 의 공유는 차라리 당연한 일이다.

기생충이 있다. 고양이를 최종 숙 주로 사람을 중간 숙주로 활용하는 기생충이다. 고양이를 만지거나 화 장실을 치운 후 손을 제대로 씻지 않았을 때 사람에게도 감염된다. 태아에게 선천성 감염을 일으킬 가 능성이 있어 임산부들의 'TORCH 검사에도 포함된다.

건강한 성인 집사들의 경우 적게 는 30%, 많게는 70% 정도가 이미 감염돼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만 면역 기능이 정상이라면 특별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아, 감염된 사 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전염 되지 않지만 고양이와 생활 환경을 공유하는 가족이나 동료라면 동시

로 뇌신경을 침범하며 뇌염, 폐렴. 톡소플라즈마 곤디라고 불리는 심근염 등을 일으켜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눈으로 침범하는 일은 드물지만 일단 발생하면 증상이 심 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 톡소플라즈마가 눈을 공격할 때는 주로 눈 속의 신경조직인 망막에서 병변이 관찰된다. 망막에 국소적인 괴사성 염증 병변을 일으키는 경우 가 가장 흔하다. 염증이 퍼지고 지 속되면서 망막 아래 혈관조직을 침 범해 맥락막염이 생기는 것이다. 이 때 눈 안의 콜라겐 덩어리인 유리체 에 염증이 생기거나, 염증 반응이 눈 앞쪽까지 퍼져 육아종성 앞포도 막염이 나타나기도 한다. 유리체염 이나 앞포도막염이 발생하면, 눈이 뿌옇게 보이면서 시력이 떨어진다.

정상 면역을 가진 환자들의 경우 에도 하필이면 황반부 또는 시신경

면역체계에 이상이 있는 경우 주 과 같이 심한 시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위치에 병변이 발생하거나 염증으로 시력이 많이 감소할 때에 는 약물 치료를 한다.

> 톡소플라즈마는 일반 기생충 약 이 아니라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전신적인 항생제를 사용한다. 염증 반응을 조절하고 시야가 흐려진 걸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경구 스테로 이드를 같이 사용하기도 한다. 보 통 3제 요법 또는 4제 요법으로 4~ 6주간 집중 치료한다. 눈 안에 항생 제를 1~3회 정도 직접 주사하는 방 법도 있다. 약물치료가 어려운 경 우 레이저나 냉동 요법으로 병변을 직접 파괴하기도 한다.

길고양이들은 이미 여러 기생충 에 감염돼 있을 위험성이 크므로 접촉에 주의해야 한다. 쓰다듬었다 면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임산 부는 더욱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열린마당

곶자왈 공유화는 청소년 생태교육에서부터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10주년



고 윤 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제주도에서는 환경자산인 곶자왈 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체계적 인 보전·관리를 위해 곶자왈생태체 험관을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곶자왈 공유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동의 첫 시작으로 초중고 학생 대 상 생태교육을 시작한다. 일반 도 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이 확대하는 것이다. 재단은 학생 들에게 곶자왈의 소중함과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곶

자왈 공유화를 알리기 위해 곶자왈 생태체험학교를 개설했다.

곶자왈공유화재단은 2007년 '곶 자왈 한평 사기 범도민운동'으로 출범해 곶자왈의 지속가능한 보전・ 관리를 위한 사업들을 활발하게 펼 치고 있다. 곶자왈 50만평 공유화 목표를 내걸고 도민과 사회단체·기 업체 등의 전국적인 후원과 참여를 이끌어냈다. 작년 말 기금 126억원 을 투입해 약 31만평(102만3981㎡) 에 달하는 사유지를 매입하고 이를 공유화했다. 또한 곶자왈 공유화 매입지가 포함된 조천읍 교래리, 성산읍 수산2리, 한경면 저지리와 마을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주민과 도 추진하고 있다.

곶자왈은 청정 지하수의 함양지 허파이며 생명의 숲이다. 곶자왈의 리하는 곶자왈 공유화 운동에 관심 이 모아지기를 기대한다.



문 생 환 서귀포보건소 의약관리팀장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최 초로 2013년에 개원해 지금까지 2130명의 산모가 이용했으며 제주 도 내 산모와 아기의 건강증진과 출산·양육 환경조성에 이바지했다.

최근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 이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을 모태 가하고 있다.

국가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민과 기업·사회단체 중심에서 제주 대이자 생태계의 보고로서 제주의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고 사회적 참여와 성장에 불편함이 돼 행정은 출생한 아이를 안전하게 잘 서는 안 된다. 가치를 널리 알리고 이를 보전·관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 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의 공감 가고 있다.

대와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고 한다. 하지만 서귀포공공산후조 리원은 질곡의 역풍에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며 대한민국의 공공산 후조리원의 모태가 돼가고 있다.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서로의 말 에 귀 기울여야 한다. 서귀포공공 산후조리원은 가임기 여성의 소리 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에 진심으로 다가서는 성숙한 조리원 으로 거듭나고 있다. 아이가 정직 하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바 라는 마음처럼 서귀포공공산후조 리원은 정책의 변화 속에서도 물결 처럼 소리 없이 나아가고 있다. 편 익을 위한 기관이 아닌 공동체 통 특히 4월부터 곶자왈 공유화 은 함께하는 곶자왈환경보전실천운동 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에 박차를 합의 마음으로 도민들에게 다가선 기관으로 남기를 원한다.

아이들이 출생하는 일이 여성의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 세상을 바꿔

·아스미 ·유라조생 2,3년생 6년생 황금향 ·한라봉 2,3년생 2년생 ·궁천 3,5년생 ·하례조생 4년생 ·레드향 2,3,5년생 ·레몬 4년생 ·천예양 ·**탱자묘목** 2,3년생 2년생

4,5년생

·하귤

최대규모 · 최고경력 · 건실육묘 35년

그외 다수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18-2003-20-08

2010-2699-2355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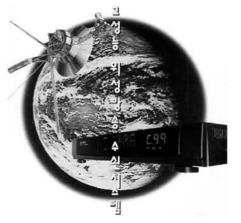
레드향 1~5년생

- 사라향 탐나는봉 • 윈터프린스
- 황금향 카라향
- 천혜향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 (화분)
- 일남일호 ● 궁천
- 유래(1~5년생)
- 천전(가와다) 조생 ※ 신품종 다수보유

서 귀 종 묘

064-733-7005, 010-6677-5753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 키폰·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 네트워크 설비공사
- ▶ 전관방송 설비공사
-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 라 전 설 (주)

대 표:현 문 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